

사랑의 손길이 필요해요

굿네이버스 네팔 산간 지역에서 발빠른 구호

굿네이버스가 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에 구호물품을 배분하고 의료팀을 파견하는 등 구호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굿네이버스는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워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자동차로 접근이 어려운 고르카 인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구호하고 있다. 이 단체는 10년 이상 이 지역에서 구호와 교육 사업을 해 왔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사역 중이다.

굿네이버스는 지진 직후 산간 지역까지 도보로 진입해 구호물품을 나눠 주었고 최근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구호팀도 파견했다. 고르카에서 자동차로 5시간 떨어진 마을에 이동 진료소를 세우고 매일 200여 명을 진료

했다. 간단한 상처 소독부터 시작해서 외상치료, 봉합수술까지 이뤄졌다. 로산 갈레(18세, 남) 씨는 “다친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어서 매우 감사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안심이 된다. 소독에 필요한 약도 받고 관리하는 법도 자세히 알려주어서 집에 돌아가서도 스스로 상처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에 진료와 함께 굿네이버스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370가구에 위생키트를 배분하기도 했다.

한편, 5월 5일부터 7일까지 굿네이버스는 3,070 가구에 구호 물품을 배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원 문의: 1-877-499-9898(한국어 3번)

김준형 기자



제64회 국가 기도의 날을 맞이해 남가주 지역 한인들은 은혜한인교회에서 미국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워싱턴DC 국가 기도의 날 한기홍 목사 “동성결혼은 죄” 기도

제64회 국가 기도의 날을 맞이해 남가주 한인들도 미국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5월 7일 저녁 은혜한인교회에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주제 아래 열린 기도회에는 약 800여 명의 성도가 참여해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회는 각각 회개와 부흥, 가정과 학교, 국가 지도자, 교회와 문화, 조국과 선교 등 5개의 큰 주제로 진행됐다. 여러 1세 목회자와 함께 윌리엄 정, 이영복, 스티븐 최 목사 등 영어권 목회자들도 기도 인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모든 순서는 한영 통역이 이뤄졌다. 기도회에 앞서 설교는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 총장)가 맡았다. 그는 예레미야 29장 12-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는 설교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 전 세계의 종교 자유 위해 헌신 약속

이날 오전 워싱턴DC 미 의회 캐논하우스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정계·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국가 기도의 날 행사가 열렸다. 오바

마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신앙인들을 환영하고 존중하며 신앙을 누릴 불가침의 권리를 보호했기에 강한 국가가 되었다”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누리는 종교 자유를 기뻐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전 세계 종교 자유를 위해 헌신하려 한다”고 했다.

한인 최초로 DC 초청된 한기홍 목사 동성결혼은 죄 선언하며 회개 촉구

이번 행사에는 한인 가운데 사상 최초로 한기홍 목사가 기도자로 초청됐다. 크리스천엠버시의 바비 리틀 사무총장은 한 목사를 은혜한인교회의 담임이며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의 회장으로 소개했다. 은혜한인교회에 관해서는 55개국에 270명 선교사를 파송한 5,000명 규모의 교회라고 소개했으며 미기총은 4,500여 한인교회가 속한 단체라고 했다.

한 목사는 “주님은 미국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셨고 이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준비시켜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다른 가난한 나라를 도우며 세

계 평화를 위해 군을 파병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한 뒤 “그러나 이 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믿음의 국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했다.

특히 그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부여 달라 기도한 후 “주님은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동성결혼을 인정하려 한다”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연방대법원이 각 주가 동성결혼을 금지할 권한이 있음을 선언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다.

한인 목사가 미국 지도자들 앞에서 미국의 죄를 회개하면서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동성결혼 문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기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AP통신 등 각 언론에도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김준형 기자

동성결혼 합법화 되면 시민불복종

허커비, 그래함 등 3만 6천명 탄원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릭 샌토럼 전 공화당 상원의원, 존 헤이지 목사와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다음 달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다고 해도 이 법을 존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맷 스테이버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 창립자와 키스 포니어 가톨릭 부제가 공동 집필한 탄원서 “결혼 수호를 위한 연대 안에 서의 서약(The Pledge in Solidarity to Defend Marriage)”에는 현재까지 3만6천여 명이 서명했다.

탄원서에서 스테이버 박사와 포니어 부제는 “이 탄원서를 통해 우

리는 연방대법원뿐 아니라 결혼 문제에 있어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는 모든 법원들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는 결혼은 물론 결혼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가정과 사회를 지키고자 연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는 신앙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 커뮤니티들에 속해 있지만 결혼의 정의 문제에서 하나되어 연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법원의 결정이 우리 헌법과 이성애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창조 섭리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국민들은 객관적인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다른 많은 것들을 용인할 수 있지만 결혼의 정의 문제는 자연의 섭리와 공동의 선에 가장 근간이 되는 문제이며 여기에 있어서는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언했다. 손현정 기자

ASO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나라오토먼트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심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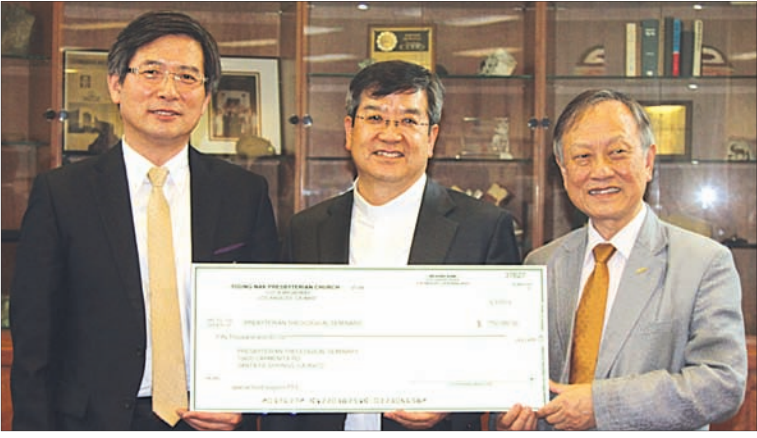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나성영락교회의 김경진 담임목사(중앙)와 임철호 장로(오른쪽)가 김계용목사 기념관에서 미주장신대 총장 이상명 박사(왼쪽)에게 5만불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 미주장신에 후원금 5만불 쾌척

“다음 세대 세우려면 신학교 튼튼해야”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6일 오후 2시 30분 이 교회 도서관 내 김계용 1대 담임목사 기념관에서 미주장로회신학교(이하 미주장신, 총장 이상명 박사)에 5만불의 후원금을 쾌척했다.

권사들로 구성된 ‘안나장학회’가 지난 4월 23일 1만불의 장학금을 미주장신에 쾌척한 이래로, 또 다시 이번에는 교회 차원에서 5만불의 후원금을 쾌척한 것이다. 이는 나성영락교회가 신학교 후원에 적극 발 벗고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날 김경진 목사는 “한인 이민교회들도 힘들지만 신학교는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신학교가 튼튼해야 한다. 신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목회 지망생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야 목회도 선교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면서 “미주장신은 1대 담임인 김계용 목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태동하게 됐다. 그 이후로 박희민 담임목사와 림형전 담임목사로 이어지면서 후원은 계속돼 왔다. 또한 미주장신은 나성영락교회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신학교이기도 하여 돕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김 목사는 또 신학교 후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보다 구체적이고도 정례적인 신학교 지원 계획에 뜻을 모으고 있는 본 교회 제직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교회 임철호 장로는 “제직회의에 참석한 이 총장이 한국교회와 이

민신학교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는 가운데, 신학교가 미래의 교회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줘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예전에는 신학교 발전을 위한 정기후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전통을 다시 살려 이민신학교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이상명 총장은 “한국의 대형교회들도 재정이 20%-30%대로 급감하면서 신학교 지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인 이민교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후원에 앞장서고 있는 나성영락교회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는 다음 세대 준비를 위한 신학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일깨우며 격려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미주장신은 ABHE 정회원이면서 ATS 준회원 자격을 획득한, 대표적인 한인 이민신학교 중의 하나이다.

한편, 이날 나성영락교회가 미주장신에 후원한 5만불은 나성영락교회의 독립된 영어 목회부인 YNCC(Young Nak Celebration Church)가 지원한 1백만불 규모의 감사헌금에서 지급되었다. 김경진 목사는 이민 2세 교회가 1세 교회를 돕는 첫 모범 사례인 이 후원금을 보다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고자 신학교를 돕는 일에 나누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영인 기자



재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남가주 총동문회가 은퇴한 선배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열었다.

“선배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 동문들이 원로·은퇴 목사들을 초청해 섬기는 위로회를 열었다. 재미 총신대원 남가주 지역 총동문회는 지

난 12일 오전 영생장로교회에서 이 행사를 열고 목회 선배들을 위로했다. 동문회장 김혜성 목사는 “평생을



은혜한인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 내 어르신들을 섬기는 행사를 개최했다.

은혜한인교회 어르신 섬기는 뜻깊은 시간 마련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5일 교회 내 70세 이상 성도들을 섬기는

격려와 위로의 잔치를 열었다. 은혜한인교회는 이 자리에 LA원로목사회와 OC원로목사회 회원들도 초대



이스트만 음대생들이 LA 바이블 컨퍼런스 기금 모금을 위해 공연한다.

뉴욕 이스트만 음대생들, LABC 기금 마련 위한 공연

뉴욕 이스트만 음대생 8명이 올해 7월 2일(목)부터 4일(토)까지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채프먼대학(Chapman University)에서 열린 예정인 Los Angeles Bible Conference(LABC) 기금 모금을 위해 LA를 방문한다. 이들은 5월 22일(금) 저녁 8시 그린힐스 침례교회(정기정 목사), 23

일(토) 저녁 7시 30분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이정엽 목사), 24일(주일) 저녁 6시 언약교회(오경환 목사)에서 LABC 기금 모금 콘서트에 참가해 찬송가, 복음성가를 비롯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할 계획이다. 콘서트는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며 두 명의 사회자가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곡을 설명해 1세와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이제 사역의 현장 배후에서 기도로 협조하시는 목사님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서는 정완기 목사의 사회로 정진기 목사가 기도하고 표세흥 목사가 발립보서 4장 21-23절을 봉독했다. 이시영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설교를 전한 후, 윤태근 목사가 헌금기도하고 원성택 목사가 광고, 양승걸 목사가 축도했다.

이 행사는 영생교회, 사랑과기쁨교회, 나성산교회, 예덴교회, 새소망교회, 잠길교회, 터닝포인트교회 등의 후원으로 열렸다.

김준형 기자

해 더욱 뜻깊은 섬김의 시간이 되었다.

총 515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1부 예배, 2부 만찬, 3부 공연, 4부 경품 추첨으로 진행됐다. 한기홍 목사는 “아버이를 기쁘시게 하라(잠언 23:22-25)”는 설교를 전했고 조이 플찬양팀이 특송한 후, LA원로목사회 전용환 회장이 기도하고 OC원로목사회 박승환 부회장이 축도했다.

공연에서는 방승인 서양혼 장로와 이미경 권사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달리다금무용단, 은혜평생교육대학 중창단, 국제찬양운동선교대학 학생 등 많은 이들이 공연을 펼쳤다. 김준형 기자

2세, 한인과 타민족이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연주회를 섬기는 8명의 연주자들은 이스트만 음대 석박사 과정생들로 소프라노-김현지, 오보에-이지원, 피아노-정예원, 김가을, 바이올린-이효경, 박지은, 비올라-나찬미, 첼로-신지인 자매이며 3일 동안 각기 다른 곡을 연주할 것이다.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열리는 LABC에서는 5명의 강사가 각각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강해설교 형식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교회의 핵심 가치 즉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을 다시 회복해 이 시대 크리스천을 부흥의 전도자, 진정한 예배자, 중보기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문의: 강영수 목사(213-598-5323), Timothy Cho(213-800-3630)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ij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각종보험·여행자보험

제19차 1일 신약통독

이번 휴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Memorial 휴일을 맞이하여 신약 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육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5년 5월 25일(월) 오전8시(시간엄수)
장소 할리웃효순장로교회 (담임 김동원목사)
1101 S. Elden Ave. L.A., CA 90006 (909)983-0994
참가비 30불 (식사 및 간식)
강사진 안성기 목사, 이화철 목사, 김동원 목사

교회 찾아오시는 길
(213)268-3589
1101 S. Elden Ave. L.A., CA 90006
올림픽경찰서 동쪽(11가와 엘덴이 만나는 곳)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후원: 갓스윌연합교회 기독교일보 미주복음방송 할리웃효순장로교회

젊은 그대 잠깨어 오라~ “주님께로”

30대 영 커플 위한 나성순복음교회 새가정 공동체



새가정 공동체는 자칫하면 교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30대 젊은 부부를 위한 신앙 공동체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줄고 있다는 것은 굳이 통계 자료를 꺼내어 놓지 않아도 모든 교회가 체감하는 현실이 되었다. 대학생이 되면 많은 청년이 교회를 떠나고, 용케 대학생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녀도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그저 주일만 간신히 지키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기 쉽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도 덩달아 교회를 떠나면서 통째로 두 세대를 잃어버린다. “교회의 노령화를 방지한다”는 근사한 캐치프레이즈는 제쳐두고라도 현실적으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교회의 허리’ 젊은 세대가 살아야 하지 않는가?

나성순복음교회가 최근 튼튼한 허리, 탄탄한 시스팩을 자랑하는 몸매로 변화되고 있다. 주일 출석 인원이 1,300여 명 정도로, 규모 면에서는 한인타운 내 교회 가운데 손꼽을 정도로 대형교회에 들지만 전체 규모에 비해 30대 영 커플(Young Couple)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차지했다. 청년부에 속해있자니 나이 차이도 많고 삶의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다고 장년들이 속한 교구로 가자니 1세 중심의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갭’ 신세 말이다. 그러다 약 2년 전, 진유철 담임목사가 젊은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갖고 기도로 준비해 10개월 전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 “젊은

부부를 위한 새가정 공동체.” 결혼을 약속한 커플부터 말 그대로 젊은 부부들이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20대 후반부터 30대들이 주를 이룬다.

예배와 성경공부 같은 거룩한(?) 모임부터 티타임, 운동 등 가벼운(?) 모임까지 다양하지만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영 커플들의 으쌰으쌰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현실적 삶의 문제를 젊은 부부들만의 구역 모임에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과 기도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공동체의 멤버 이인규 씨는 “간지러운 곳을 긁어준다”고 표현했다. “학생 때나 싱글일 때는 안 하던 고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직장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부터 ‘부부 싸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출산을 위해 부모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같은 거요. 삶의 공통분모 위에서 신앙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는 “마음 속 깊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는 그 소속감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이 공동체를 맡고 있는 이일 목사는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매달 두 번째 주일에 전체 모임, 첫째·셋째 주일에 소그룹 구역 모임이 있다.

그는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

는 과정이 보통 교회에서 생각되기 쉽다”면서 “비교적 교육과 훈련이 잘 이뤄지는 장년 세대에 비해, 이 민교회 현실상 영 커플들은 교회에 정착하기도 쉽지 않고 정착하더라도 장년들의 훈련 과정에 동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영 커플들에게 딱 맞는 성경공부와 신앙훈련으로 이들의 필요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그렇다고 장년 세대와는 아예 선을 그어놓는 폐쇄적 공동체는 아니다. 새가정 공동체의 맞춤형 훈련은 장년 세대 중심의 교구로 편입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2년 간 새가정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으면, 그 후에는 여러 커플들이 구역을 구성해 교구로 편입된다. 영 커플들은 장년 세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배우고 장년 세대들은 교구에 젊은 이들이 많아져 교구 사역에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안에서부터 가득 채워지면 반드시 밖으로 넘쳐나야 한다”는 점이다. 믿는 사람끼리 ‘좋다 좋다’에 그치지 않고 잃어버린 세대를 통째로 전도하는 것이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닌 기억만 갖고 있거나, 교회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했던 영 커플들, 마지못해 주일만 지키는 부부와 그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삶을 전하는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5가정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12가정이 참여하고 있다. 3가정은 벌써 교구로 올라갔고 올드 멤버는 2가정뿐이니 현재의 10가정은 파끈파끈한 새 멤버다.

새가정 공동체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약 10가정이 비백어로 수련회를 간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출석교회를 정하지 못한 새가정들을 초대하고 있다.

문의) 이일 목사 818-521-9200

배영준 회장 818-731-9776

김준형 기자

“어머니 날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살롬교회와 코이노니아 함께 어르신 섬겨



남가주살롬교회 봉사팀과 코이노니아선교회 소속 ‘윙스 오브 조이’ 찬양팀이 어머니 주일을 앞두고 7일 오전에 ‘골든 웨스트 타워’ 양로아파트를 찾아 위로로 어르신 섬김에 앞장섰다.

어머니 주일을 맞아 남가주살롬교회(담임 김준식 목사)와 이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가 7일 오전 옐로스카운티 지역 ‘골든 웨스트 타워’ 양로아파트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위로했다.

이날 코이노니아선교회 소속 ‘윙스 오브 조이’는 찬양과 연주로 섬기고, 이 선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남가주살롬교회에서는 풍성한 음식 제공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며 보다 뜻깊은 어르신들 섬김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김준식 목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행16:31)란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이러한 기도를 잘 들어 주신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은 자

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이다”며 힘겨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의지하며 위로받기를 권했다.

이어서 ‘윙스 오브 조이’ 찬양 연주팀은 아름다운 성악과 색소폰, 바이올린, 피아노 등의 선율로 홀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계 어르신들도 많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동시 통역되기도 했다.

한편, 코이노니아선교회 소속 ‘윙스 오브 조이’ 찬양 연주팀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역 어르신 찾아 음악으로 섬기는 활동을 지속해 가고 있다. 대표 박 목사에 따르면, 이번이 벌써 68째라고 한다. 문의는 남가주살롬교회(310-787-1004)와 코이노니아선교회(310-508-2733)로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재미기독여성합창단이 창단 30주년을 함께 할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기독여성합창단 30주년 음악회 단원 모집

재미기독여성합창단이 창단 30주년 기념 음악회에 함께 할 단원을 모집한다. 1986년 창단된 이 합창단은 2016년 10월 23일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12시 30분까지 조한우 교수의 지휘와 조혜정 박사의 반주로 미주평안교회에서 맹연습 중이다. 이 합창단은 찬양을 통해 선교하

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시작돼 지금까지 자연 재해 피해자들과 북한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선교사 후원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단장 장영순 권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 여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발달장애인 위한 사랑의 마당축제 열려

해피빌리지와 남가주밀알선교단이 함께 사랑의 마당축제를 열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28회 사랑의 마당축제’가 5월 2일 뒤위어 내로우 공원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해피빌리지와 남가

주밀알선교단이 함께 연 이 행사에는 300여 명 장애인을 섬기기 위해 자원봉사자 600여 명과 행사 도우미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남가주밀알은 “올해도 여러 교회, 단체의 정성어린 수고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www.e-nca.org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5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입학 상담: (213) 400-3588,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 여승훈 목사의 목상칼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여승훈 목사
복음주의 칼럼니스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나 기도드릴 때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개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라는 사실이다. 그냥 막연하고 어렵 뜻한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올리는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하는 예배와 기도는 곧 죽은 예배와 죽은 기도가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도 보편적인 현상일지도 모르겠다.

더욱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예배와 기도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믿음이 정말 위대하다고 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예배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앞에서 사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드러지게 된다. 사람 앞에서 예배를 행하게 되면 사람 보기에 좋든대로 행하려는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사람 보기에 화려하고,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 지루하지 않고, 사람 보기에 인정받을 만하고, 사람 보기에 근사해 보이는 무엇들을 계속 추구하게 된다.

그런 예배가 얼마나 복잡하고 세련되고 화려하겠는가? 청중들은 마치 한 편의 좋은 공연을 본 것처럼 엔돌핀이 팍팍 도는 듯한 기분으로 얼마나 즐거워 하겠는가? 예배 기획팀들은 사람들을 충분히 즐거워하게 한 것으로 매우 성공적인 예배가 되었다고 자평하기도 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희미한 인식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세미나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 소위 '코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심리학적 분석과 접근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세미나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제법 유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세련된 세미나에 너도나도 세련과 겉멋에 몰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달려 가고 있다. 그것도 젊은 신세

대들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더욱 정신없이 달려 가고 있다.

왜 그런지 아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인식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정확히 보게 된다.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소위 도덕 강론과 관련된 세미나들도 여기저기서 한다. 그러나 도덕 강론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들로 하여금 도덕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하는 힘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의 만남 이후에 그 뛰어났던 유대교의 도덕주의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가 바울이 배설물처럼 내려 놓았던 율법적 도덕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니 이것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든다.

청교도들의 메시지를 보라.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관한 기초 교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일관되게 전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왜 현대 기독교는 점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라는 진리 앞에서 깊은 묵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던 베드로의 신앙고백에도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즉,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기관인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임을 증거하고 있다. 천지 우주의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사용하셨다. 구약에 등장하는 리더들이나 선지자들과 교통할 때도 언제나 말씀으로

다가가셨다.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료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재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육신의 감정들 즉 육신의 피곤함, 배고픔, 고통, 슬픔, 분노들을 다 느끼셨다. 무슨 말인가?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분의 살아계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의 모든 예배는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한 모든 것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될 것을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요행이나 확률적으로 뭔가 맞아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멈춰져야 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시이다. 그래서 이번만이, 그리고 이분의 복음만이 변화의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참된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길이 어디에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열약한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소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고단한 이민생활을 이겨낼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영혼의 양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마음의 기쁨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코리안 아메리칸(Korean-American) 2세대들을 어디로 이끌어 줘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교회의 참된 평화와 화해를 가져다 주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도 힘든 하루 하루를 누구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만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미주기독교한인사협회 임원들이 샬롬장애인선교교회를 찾아 무료 의료봉사를 펼쳤다.

“의술로 주님 사랑 전해요”

기독교한인사협, 샬롬장애인교회 찾아 의료봉사

미주기독교한인사협회(회장 이기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일 샬롬장애인선교교회(담임 박모세 목사)를 찾아 의술로 주님 사랑 전하며 지역 전도에 나섰다.

이날 무료 의료봉사 활동은 미주기독교한인사협 임원진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2시~5시까지 성황리에 진행됐다.

봉사에 참가한 협회 임원들은 약 20여 명의 장애우들에게 건강상담까지 곁들이며 정성껏 보살피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며 장애우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미주기독교한인사협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의술을 통한 지역섬김과 전도에 나서고 있다. 주로 성도 중 한의사가 없는 작은 미자립교회를 찾아 무료의술을 펼치는데, 이는 작은 미자립교회를 통한 그 지역 복음화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샬롬장애인선교교회를 찾은 이유는 매년 5월이 되면 이 교회에서 정례적으로 '아버지날 행사'가 열리는데, 행사 후 장애우들을 돌봐 주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참여하게 됐다.

한편, 이 협회는 매달 둘째 주일 오후 5시에 히스처치(HIS Church: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담임 김수영 목사)에서 설교자를 초청, 월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약 2시간 30분 가량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방 의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 협회 가입과 활동에 대한 문의는 회장 이기미, 전화 213-235-7169로 하면 된다. 또한 웹사이트는 www.comaaa.org를 참고하면 된다.

[미주기독교한인사협회 자료제공]

이번 메모리얼 데이엔 성경통독

5월 25일(월요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오직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운동”을 펼치는 미주요한선교단은 헬리웃효순장로교회에서 신약 성경통독 집회를 준비했다.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주최측은 “이 체험은 우리들 일생에 귀중한 간증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꼭 참석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분들이 오셔서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기도응답을 받을 소망한다”고 전했다.

안성기 목사(미주요한선교단), 이희철 목사(가스원연합교회), 김동원 목사(헬리웃효순장로교회)가 강사로 나서며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회비는 식비 및 간식비를 포함해 30불이다.

문의: 213-268-3589 주소: 1101 Elden Ave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2015 VBS JOIN US

탐미디어에서 준비한 더욱 풍성한 2015 VBS 아이템... 미리 준비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50

VBS CD
(Copy & Print)
\$1 (Min. 50개)

~~\$75~~ **\$60**

VBS BANNER
3 ft x 10 ft \$75

패키지 상품

아이베너VBS 환영배너 2set
+CD50장 +포스터30장

\$250

VBS T-SHIRT

VBS T-SHIRT를 탐미디어에서 주문 해야 하는 이유

- www.group.com보다 더 저렴한 가격 (음션)
- 앞면에 교회 이름까지 인쇄
- LA 근교 FREE SHIPPING

어른 \$7.20 (일반사이즈 기준)
어린이 \$4.20

VBS 어린이 선물용품 coming soon

MEDIA TOTAL SOLUTION
TOPMEDIA
www.topmediausa.com
3170 E.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e-mail: info@topmediausa.com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junimedia.com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담교회' 담임목사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Pre-K/Kindergarten Pastor

유치부 전도사

Descriptio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GSPC) is located East of Los Angeles in the city of Rowland Heights. We are searching for a part-time pastor to shepherd our preK-kindergarten (age 3-6) department. We are searching for a shepherd who will love, model, and teach our young children toward our Lord Jesus Christ.

Qualification requirements are as follows:

1. Currently enrolled, or graduated from a Bible college or theology program at an accredited seminary. Verification WILL BE requested prior to hiring.
2.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Korean-American immigrant church and cultural context.
3. Fluency in English. Fluency in Korean is not necessary but this position requires at least som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Korean parents.
4. Previous children's ministry experience preferred but we will consider all applications.
5. A person of prayer.
6. Must have a family-centered ministry mindset, as parents are a crucial part of the ministry.

Primary duties are as follows:

1. Direct and lead Sunday worship as well as Bible study each week.
2. Direct and lead Friday night fellowship each week.
3. Create and execute annual plan and budget for the kindergarten department. The annual plan will include activities and events such as: VBS, prayer meetings, and any other fellowships.
4. Oversee and lead a staff of Bible study teachers.
5. Collaborate and work with other pastors in the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
6. Report to the Christian Education pastor.

Position	Salary and Housing	Benefits
Part-time	\$1500/month	none

a Resume with picture and Testimony
2 or 3 letters of recommendation/must come directly to Clark Choi from the recommender via email or US mail
mp3 or a youtube link to one of your sermons it would strengthen your applicatio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EMAIL :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Phone : 714.328.2866

첫 사사 옷니엘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싸워 이기므로 갈렘의 사위가 된다. 가나안의 '뜨거운 감자' 아낙자손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선두에 서서 전쟁을 하여 기랴 세벨을 정복한다. 40여 년 전 온 이스라엘 사람을 떨게 한 이 거인들과 싸워서 갈렘이 승리하고 또 이어서 옷니엘이 승리를 쟁취한다.

옷니엘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침입,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할 동안에도 다시 지도력을 발휘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배나 악독한 자'라는 의미의 리사다임

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방 통치자 구산 왕 앞에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옷니엘은 구산 리사다임 왕을 공격하여 메소포타미아 세력을 쫓아내고, 해방자가 되어 정착을 위한 전쟁을 마무리한다.

첫 번째 사사 옷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그가 사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유지한다. 하나님은 지도자 옷니엘을 통하여 나라를 회복하신 것이다. 한 명의 지도자는 이처럼 중요하다. 옷니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구원자이다. 억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자, 하나님은 옷니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왕도 물리치는 용사가 된다. 옷니엘은 용맹한 사람, 성령충만한 사람,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좋은 지도자를 얻어 평강을 누리며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어머니 서랍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다. 정말 어머니 서랍은 비위가 없나 보다.

제한된 나의 서재도 점점 늘어나는 책과 자료와 서류들이 무슨 자랑이나 하듯 책상 위에 모두 나와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다. 어느 순간 내가 정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버렸다. 그래서 결국 서랍 하나를 열어 모두 끌어 넣어 버렸다. 나중에 열어 하나하나 정리할 생각에 그리웠다. 시간날 때마다 서랍을 열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를 시작하는데, 비위 없는 어머니 서랍이 왜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는지 그냥 눈물이 핑 돈다.

자녀들이 어머니 뺏살 좀 줄이라고 구박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오만까지를 다 쓸어담고 계시는 서랍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없는 자녀들이 있는 한 우리 어머니 허리는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어느 날, 정리 한계를 벗어난 책상같이 망가진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책상 위의 쓰레기들을 말끔히 청소해 주신 분이 계셨다.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당신의 서랍 안에 담아 깨끗이 정리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주님의 서랍은 마치 어머니 서랍 같았다. 나의 지저분한 모든 것을 쓸어 담은 서랍 안에서 깨끗해지고 나아가 가지런히 정리정돈되어 있는 것이다. 불효자를 효자 효녀되게 하고 철없는 남편을 영웅으로 만들어내는 어머니의 매직 서랍 같았다. 그리고 참, 정말로 무지무지 감사한 것은 주님의 서랍에는 우리 어머니 서랍도 담겨 있는 것이었다. 없는 줄 알았던 어머니의 비위가 바로 주님의 서랍에 담겨 있었다. 주님 앞에서 우시는 어머니의 눈물이 비위 되어 주님의 서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다. 망나니 소리를 들을 만큼 문제아였기 때문이다. 남들은 나를 멀리하고 피했지만, 그럴수록 엄마는 나를 끌어안고 울며 사람 구실하라고 애원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 교회 간다고 나간 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부터 엄마는 3년 이상을 날 찾아 사방으로 헤매셨다. 아들 다섯을 낳았는데, 셋은 4살 안에 흉역으로 죽고, 하나는 6·25 전쟁 중에 죽었고, 또 다른 하나는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나머지 잃어버린 엄마는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월남하신 엄마는 어느날 충남 논산에 있는 반공 포로수용소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무작정 그곳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만 4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됐다. 포로수용소가 여러 곳에 있었고 논산에만도 수 만명의 포로들이 여러 수용소에 나뉘어 있었다. 4중 철망과 삼엄한 경비 속에 면회란 상상도 못

하는 곳에서 극적으로 몇 초간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엄마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키는 줄었고 등은 구부러지고 머리는 반백으로 변했다. 그렇게 곱던 얼굴에는 주름살이 너무도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사랑하는 자식이 없어지면 그 자식을 찾을 때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찾아내는 엄마의 사랑과 끈기.

나는 엄마에게서 삶의 철학을 배웠다. 어디가나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그 비유인즉, 어느 날 까마귀가 까치에게 물었다. "왜 사람들은 나만 보면 돌을 던지고 쫓아내느냐? 왜 까치인 너를 보면 환영하느냐? 그 비결을 알려 달라"고 하자 "그래, 그 비결은 네 목소리를 바꾸는 거야! 짹 짹 하는 네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 나는 각각 각 하며 꼬리를 흔드는 거야! 그러면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겠네 하고 좋아해. 그러니 네 목소리를 바꾸라"고 했단다. 맞다. 남들에게 도움을 주면 칭찬 받으며 살 수 있다고 했다. 내 평생 이 교훈이 나의 좌우명이 되었다.

'엄마는 천둥소리는 못 들어도 애기 우는 소리는 듣는다'는 말이 있다. 한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과 사랑을 주면서 기뻐했던 엄마,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답하고자 할 때는 이미 옆에 계시지 않은 엄마가 보고 싶고 더 그리워진다.

사사(shophet, 士師)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살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수백 년 동안 다스리던 정치가를 의미한다. 이들은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였는데, 하나는 이민족을 대항하는 전쟁 시대의 군사 지도자요 평화 시대의 정치 지도자이다.

이처럼 사사라 불리던 사람은 12명 혹은 여사사 드보라와 동역한 바락까지 더하여 13명으로 일컫는데, 이 12명은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으로 나뉜다. 대사사로서 강력하고 긴 시간 동안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옷니엘, 에훗, 드보라(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이고,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그리고 압둔이다.

12사사 중에서 첫 사사는 유다지파의 옷니엘로서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갈렘의 가까운 친척인데, 분명한 것은 그의 용맹으로 거인들과

저의 어머니, 아니 울 엄마를 표현할 말을 찾기가 힘들다. 50 중반의 아들이지만,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엄마"를 부르고 싶은 아이가 되고 싶다. 요즘 아버지를 병간호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식들과는 차별화되시는 탁월함마저 느낀다. 아버지에게 음식을 떠 드리며 남은 음식을 당신이 드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떠 드리던 같은 손가락으로 드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자녀는 "으~"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웃으면서, "너희 어렸을 때도 그랬다"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은 뒤돌아서며 다들 비위가 상한 양 설레설레 고개를 내저었다.

어머니 속은 마치 뭐든지 담을 수 있는 큰 서랍과 같다. 그 엄청난 삶의 시름과 고난도 넉넉히 담고 있는 서랍 같다. 자식들의 아픔과 불평, 그리고 그 불효막심한 부족함도 그 서랍 안에 쓸어 담으면 신기하게 효자 효녀로 둔갑한다.

편하다고 막 대하는 남편의 무례함도, 영원히 철들지 않는 애 같음도, 그리고 말년 병석에서 흘리는 밤알과 연약함도 어머니 서랍에 담겨 영원히 잉꼬부부가 되어버린

왜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가 더 그리워질까? 엄마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나이도 아닌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참 사랑과 애뜻한 정을 느껴보지 못하고 실망만 쌓여가게 되니 대가 없는 희생과 사랑을 보여준 엄마가 더 그리워지는 것이리라.

오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된 것은 엄마의 희생이 있었고 그 엄마에게서 받은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한 생명이 태중에서 잉태될 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 엄마, 엄마 자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앓고 서고 높고 일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얼굴이 검버섯으로 덮이겠지만 사랑의 열매인 한 아기가 자신의 분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며 감수하신 엄마, 나는 배웠다. 한 생명이 자라려면 누구인가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약골이 되어 지나가는 감기는 물론, 열병, 장질부사, 저혈압 등으로 아픈 날이 너무도 많았다. 오죽하면 학교 문 앞까지 엄마가 업어 데려다 주었을 까. 이제 열살을 막 넘긴 나를 친척 집에 맡기고 멀리 떠났을 때,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 떨어져 있는 아들도 엄마를 자나깨나 그리워했지만 엄마의 가슴은 더 타들어 갔을 것이다.

몇 년 후 다시 만났을 때 엄마의 기쁨은 잠깐이고 다른 걱정이 생겼다. 나는 이상한 아이가 되어 있었

“교회와 사회에 화평의 문화 심는 기관 되길”

한국기독교교회해중재원, 개원 7주년 감사예배 드려



한국기독교교회해중재원 개원 7주년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사)한국기독교교회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양인평 장로, 이하 중재원) 개원 7주년 감사예배가 12일 오전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담임 피영민 목사)에서 열렸다. 서상식 목사(부이사장, 동부순복음교회 원로)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하태초 장로(이사, 예정 합동 전국장로회 중경회장)의 기도, 김인환 감독(성은감리교회)의 설교 및 축도로 진행됐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요 17:20~21)란 제목으로 설교한 김인환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자이자 중재자이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되기를 원하신다”며 “중재원은 바로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다”고 전했다.

예배 후 이어진 축하행사는 피영민 이사장의 환영사, 양인평 원장의 인사, 장우건 운영위원장의 사역 비전 발표, 박병대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격려사, 이강평 목사(한기총명예회장)와 김춘규 장로(한교연 사무총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피영민 이사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7년간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 한국교회에 갈등만 있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기관과 노력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중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인평 원장은 “중재원의 설립은 하나님을 섬리하고, 중재원이 사회에서도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리라는 확신이 있다”면서 “갈등과 분쟁이 있는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우건 운영위원장은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ADR)로서 중재원이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교회 분쟁은 사건의 성격이 판결로 해결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최근 크게 발전하는 ADR에 의할 필요가 크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ADR의 효용성에 관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머지않아 이 방식이 분쟁 해결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병대 대법관은 “중재원의 개원 7주년을 축하한다. 중재원이 성경의 원리와 실정법의 조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

며 “이 사회에 평화의 정신이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이강평 목사는 축사에서 “중재원이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 불화를 법 제도 안에서 성결이 추구하는 용서와 화평, 평화의 정신으로 치유하려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회와 우리 사회에 화해와 화평의 문화를 심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교연 양병희 대표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김춘규 장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중재원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 온 것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중재원은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단체 이외의 모든 분쟁을 법원의 소송이 아닌 대안적 방법, 즉 상담과 조정 및 화해, 중재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 설립됐다.

김진영 기자

예성, 총회장에 송덕준 목사 추대

제94회 총회 부총회장에는 이동석 목사와 강규열 장로



이중북 직전총회장(왼쪽)이 송덕준 총회장(오른쪽)에게 의사봉을 전달하고 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신임 총회장에 송덕준 목사(서울 독일교회)가 추대됐다.

예성은 11일-13일까지 성결대학교 내 ‘예성 80주년기념관’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주제로 제 109년차대회 및 제 94회 총회를 열고 있다.

12일 오전 실시된 임원선거에서는 모든 직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룸에 따라, 신임투표만을 실시한 끝에 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확정됐다.

송덕준 목사는 총회장 취임사에서 “저는 총회장의 직분을 정치적인 권위의 자리보다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이다”며 “총회장의 직위가 목사보다 존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지교회 목사에서 앞으로 총회장 임기 동안에는 교단의 담임목사로 큰 목회를 하고자 한다”며 “그래서 목회적 관점에서 교단을 바라보고, 성결 가족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할 것이며,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한 부총회장에 이동석 목사(서울 능력교회)와 강규열 장로(서울 제일교회), 서기에 홍사진 목사(부천 주천양교회), 부서기에 김윤석 목사(안양 좋은이웃교회), 회의록서기에 이상록 목사(성남 새문교회), 회계 김종상 장로(서울 신수동교회), 부회계에 정기소 장로(수원중앙교회)가 각각 당선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총회 시법제부를 통해 연구키로 한 헌장개정안이 상정됐는데, 주요 내용은 지방회장의 자격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원로목사의 자격을 ‘목사 경력 30년’에서 ‘목회 경력 30년’으로 개정해, 전도사 청빙 승인 이후부터 목회한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바꾼 헌장의 재개정 문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류재광 기자

합동 평양제일노회, 미자립교회 지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백남선 목사) 평양제일노회(노회장 김은각 목사)가 미자립교회 목회자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176회기 예산을 최종 확정된 가운데, 5월 11일부터 매월 노회 소속 미자립교회 목사 20명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어 교계 안팎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평양제일노회는 지난 4월 13일 176회기 봄 정기노회에서 만장일치로 예결산위원회(위원장 권순석 목사)를 구성, 예산 편성 전권을 위임했다. 이후 예결위에서 여러 차례 축소심의를 거쳐 1억 9천 5백만 원의 전체 예산을 확정했는데, 그 중 5천만 원을 ‘미자립목회자 최소생활비 지원’ 항목으로 편성해 1차로 5월부터 향후 2년간 매월 2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이 결정 과정에 노회 소속 교회 중 하나인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당회(제242회) 결의로 5천만 원을 교회 추경예산으로 수립, 노회와 보조를 맞춰 노회가 송금하는 같은 날 미자립교회 목회자 20명에게 월 20만원씩 생활비를 별도 지원키로 해, 실제로는 매월 40만 원씩 연 5백만 원(연간 규모 1억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노회 소속 열방교회(담임 김국명 목사)는 크게 기뻐하며 지원해 노회 상회비를 150% 상향하여, 뜻을 함께한 몇몇 교회와 함께 노회비를 전액 우선 납부하고 목회자 특별지원금으로 1천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그 밖의 노회 소속 여러 교회들도 조금씩이라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무교회 성향 일본교회, 설교에 의한 교회 형성 필요”

장신대 해외석학 초청강좌, 동경신학대학 코이즈미 켄 교수 강연

“일본 기독교는 많은 적든 모두 무교회적 경향을 띠고 있다.” “일본 교회는 법적인 성격이 약하다.” “교회 생활을 법적으로 질서화하고자 하는 관습이 함양되어 있지 않고, 법적 정신을 살리고자 하는 태도가 익숙하지 않다.”(이시하라 켄 “일본 기독교사론”)

동경신학대학 코이즈미 켄 교수(실천신학)는 12일 오후 장신대 한경직 기념예배당에서 열린 해외석학초청 강연에서 “설교에 의한 교회 형성”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이러한 일본교회의 약점을 소개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동경신학대학 목회자들이 교회를 중시해 왔다고 소개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형성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가 불러 모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게 하는 사역이 ‘교회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코이즈미 켄 교수는 일본에서 ‘설교에 의한 교회 형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상에 매개하는 것 ▶설교와 성찬은 그리스도의 현

재적 임재와 구원행위의 수단 ▶설교와 성례 전이 교회를 형성한다 ▶설교는 청자에게 그리스도를 주고 청자를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한다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코이즈미 켄 교수 이수민 기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9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9:00 PM
Tel: 213-739-1022

www.SuperMirapharm.com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100% 천연 면역조절제”
“100% NATURAL IMMUNOMODULATOR”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인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품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600~~ \$400 /1병 (한달분)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인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가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최근에 피부암 치료제 옵디보가 출시되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약값이 \$143,000입니다. 그러나 미라팜-22는 피부암은 물론 각종 암 치료제입니다. 한 달분 한 병 특가 \$400이며 임상 치료 효과도 더욱 높습니다.

Mirapharm-22 복용 체험담 요약본

- (60대 남) - 대장암 말기로 1년6개월 동안 매일 혈변, 수술 일절 안하고 항암제도 전혀 안받고 오직 미라팜-22만 하루에 6알 복용. 그 후 암덩어리가 자꾸 빠져 나오기 시작. 50일이 경과한 후부터 일절 혈변이 없이 한 달(11월7일)째임. 건강해지면서 피곤이 없어지고 식욕도 돌아옴. 저희 업소가 있는 몰 안의 경비원으로 근무중
- (50대 여) - 쇼그렌증후군 7년이상 눈물, 침 분비가 안되는 불치병. 7년동안 삼성병원 치료받고 있어도 효과 전무함. 제력 충분하여 현대의학, 어떤 대체의학도 치료불가능 체험함. 미라팜 5알씩 복용 후 2주일쯤부터 편안한 느낌. 28일 후 침샘이 고임. 4개월 지나서 백혈구 수치 4000이 넘어 정상 회복됨. 과거 큰 사업들 다 접었는데 지금(11월7일)은 더 확장하면서 급속도로 호전됨.
- (47세 여) - 구인외사로 얼굴 반쪽이 찌그러서 은행도 그만두고 1년 동안 밖에도 돌아다닐 수가 없다가 3병 복용 후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다시 은행에 다닐 준비하고 있어 행복하다 하심.
- (9세 여 베트남) - 백혈병으로 고생 중 2병째 먹고 딱딱했던 두피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해지면서 회복 중. 어머니가 채널 57-1 베트남 TV 방송에 인터뷰 자청하심.
- (56여 베트남) - 몇 달 복용 후 목에 갑상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암 세포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 (26 남 베트남) - 날 때부터 자기면역 알러지 질환으로 피부가 갈라지는 난치병에서 미라팜-22를 이틀 먹고 즉시로 회복되어 건강해져서 그 어머니가 베트남에 방문하여 베트남 정부병원 닥터 16명과 3일간 미라팜-22 의약품 미팅을 가짐.
- (84세 여) - 만성속환으로 인사불성에 장례준비하러 의사 권유에 미라팜 며칠 먹고 간호사도 놀라는 가운데 의식회복하고 곧 바로 손주와 직접 전화통화함.
- (60대 여) - 의료사교로 뇌사판정 후 장례 준비 권고 3회 받고 마지막 기회로 죽어도 좋다고 서명한 후 미라팜-22 선택. 위장관을 설치하여 위장에 넣고 18시간 후에 의식을 회복함. 유튜브에서 "뇌사 미라팜" 을 검색하면 나옴
- (50대 여) - 한 병 드신 후 파킨슨병으로 고생 중 팔 움직임이 좋아졌다.
- (20대 여) - 한 달 후 생리불순 해결되었다.
- (70대 남) - 한 병 드신후 암 수술로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검은 머리카락 다시 난다.
- (50대 여) - 하루 3캡슐로 5일 복용후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다.
- (50대 여) - 밤새 잠을 못 잤는데 10일 후 편안하게 자면서 낮잠도 잔다.
- (60대 남) - 하루 5캡슐로 전립선이 많이 호전됐다.
- (50대 여) - 일주일 복용 후 머리 감은 후 화장실 바닥이 까맣게 될 정도로 빠진 머리가 한 올도 안 빠진다.
- (70대 남) - 전립선암, 대장암 수술 이후 다리 전체 절임이 줄어들고 식욕이 증가됐다.
- (50대 남) - 쓸개 수술 후 3년동안 하루 6번 설사가 이를 복용 후 멈추었다.
- (60대 남) - 신장투석 중 가려운 증세가 없어지고 인 성분이 툭 떨어졌다.
- (80대 여) - 각종 암 수술 후 거의 움직이지 못하다가 한 병 드시면서 기력을 회복되고 있음.
- (50대 남 외국인) - 대장암 환자. 미라팜-22를 2병째 먹고 대변 시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회복됨.
- (50대 여 외국인) - 체제가 유방암 수술 후 재발하여 미라팜-22 복용 후 6개월 만에 완치 판정받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5개국 미라팜-22 독점권을 신청하여 획득하고 현재 사업 중임.

(이상은 미라팜-22를 복용하고 체험법은 최근의 사례에 불과하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네팔 주재 한국선교사협의회- 사랑과 헌신으로 구호활동 펼쳐

14개도 108개 마을 피해 주민에게 구호물품과 사랑 전하며 소망 심어줘



한인 네팔 선교사들이 선교사협의회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네팔 주재 한국선교사협의회

“오늘(11일) 신두팔축 빵그레팔 가비스와 320가구 중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가구에 텐트 35개, 모포 100장, 모기장 100개, 검정 스핀지 매트리스 50m 4개 물품을 전달하고 카트만두로 출발합니다. 이 마을은 320가구 중 전체가 붕괴하거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집들이 보기 흉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신두팔축 골짜기에서, 114개 가정 중 112개 완파, 사망 11명, 중상 3명, 쌀 114포대와 천막 50개 지원하였습니다.”

“전 어제(8일) 릴리푸르 타이버 지역에서 100여 명에게 점심 한 끼를 제공하고 쌀 25kg 28포대, 라면 25박스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꼭두차 마작탄에 잘 다녀 왔습니다. 담요 50장, 텐트 50개에서 아직 텐트는 두 개밖에 없어서 못 갖다 주었고요. 여성용 키트 100개는 인기 ‘짱’이었습니다.”

전문 구호대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보고가 아니다. 지난달 25일 대지진 발생 당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네팔 주민들과 똑같이 지진을 경험하고 피해를 입은 현지 한인 선교사들의 이야기다. 갑작스럽게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이들은 식량과 긴급구호물품을 트럭에 싣고 네팔의 험한 지형과 비포장 도로 위를 달렸다. 13시간 동안 트럭을 타고 도로와 낭떠러지 길을 통과해 고지대 마을을 찾아가 하면, 산사태, 낙석의 위험에도 산속 마을에 꼭 필요한 식량과 텐트를 전달했다. 물론 선교사들도 위험한 길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이들은 “지진 발생 후 2주 정도 지나자 구호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는 어

느 정도 구호물품이 전달됐지만, 네팔 지형상 접근이 어려운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 구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지 마을 피해 주민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해도 구호활동에서 소외된 주민들은 구호물품을 싣고 도착한 선교사들을 반기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 선교사는 “정부나 외부의 도움이 없어서 텐트도 없이 산 속에서 생활하고, 열흘 넘게 밥을 못 먹음 정도로 구호가 시급했던 지역을 돕고 온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선교사들은 구호사역 외에도 지진으로 교회 건물이나 파괴되고 성도들이 사망한 네팔교회들을 방문해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는 사역도 했다.

이처럼 대지진 직후 피해 주민과 현지 교회 및 성도들을 위해 신속한 초기 구호활동을 펼친 네팔 주재 한국선교사협의회 재난대책본부가 10일 해산하고, 향후 각 교단 및 선교기관, NGO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구호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12일 또다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추후 대처방안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큰 방향은 이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팔 주재 한국선교사협의회는 지난달 25일 대지진 발생 3일만인 27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국위기관리재단(KCMS)과 함께 3차 협의를 통해 네팔 한인 선교사 12명으로 구성된 재난대책본부를 발족했다. 대책본부는 14일 동안 총 16만 1,759달러(약 1억 7,700여 만 원)를 모금하고 총 14개 도, 108개 마을의 피해 주민에게 식량, 구호물품 등을 전달했다. 이들은 3천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신두팔축을 비롯하여 카트만두, 누와곳, 다딩, 러수와 등 14개 도에 쌀 20,259포대, 라면 1,034박스, 천막 6,012개,

4인용 담요 2,284장, 현금 등을 긴급 지원했다. 추가로 천막 3천 개는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 중이다.

대책본부장으로 섬김 어준경 네팔 주재 한국선교사협의회 회장은 11일 페이스북(Pray for Nepal, 네팔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에서 ‘긴급구호 국면에서 중장기적 복구사역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협력선교의 방향에 대하여’란 글을 통해 “NGO, UN, 외국 원조에 따른 네팔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급박하게 구성해 활동한 대책본부는 5월 10일자로 일단 해산하게 됐다”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혔다.

어 본부장은 “지진 발생 이후 선교사회는 긴급하게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초기 구호활동을 펼쳤고, 모든 선교사님의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이고 신속한 구호활동으로 많은 네팔 사람이 절박한 재난상황 속에서 시의 적절한 도움을 받았을 수 있었다”며 “이 일을 감

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선교사회가 복구사역을 장기적 전망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단계에서는 교단별, 선교기관별, 선교사별 사역이 활발해질 것이며, 선교사회는 개별적 사역이 최대한 서로 협력하여 불필요한 중복과 낭비를 줄이고 경쟁적·소모적 활동을 최소화하도록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교사회 소속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 안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어 본부장은 “연합 사역의 한 모델로, 지역별 연합사역을 추진하여 교단이나 선교기관들이 협력하여 해당 지역 네팔교회연합과 공동으로 사역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며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되게 하심을 복구사역 속에서 이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어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처한 네팔의 회복을 위해 섬기며 도와야 하는 상황은 저희 선교사회에 큰 도전일 뿐 아니라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책임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연합, 협력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는 중의 모습으로 섬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네팔 주재 한국선교사협의회는 지역별 연합사역의 한 모델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후원금은 특정 교단, 단체, 개인이 아닌 선교사회가 공동 추진하는 복구 및 재건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희다.

이번 구호 사역에 동참한 한 네팔 선교사는 “네팔 한인 선교들의 헌신과 동역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랑스럽다”며 “한국교회 역시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동역한다면 더 큰 일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탄의 늪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NGO 사역자는 “이번에 선교사회에서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다른 단체들보다 빨리 초동대치를 해주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네팔 주재 한국선교사협의회 재난대책본부의 한국 내 장구 역할을 맡은 한국위기관리재단(KCMS)도 현장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 구체적인 사역 계획을 세워나갈 방침이다. 현재 두 단체는 대지진 참사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예방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 등에 협력하고 있다.

KCMS 사무총장 김진대 목사는 “재난 발생 직후 당장 도움이 필요한 피해 주민들을 위해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선교사회가 신속하게 전략을 세우고,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구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KCMS는 지난 2주 동안 네팔로 들어가는 구호팀, 봉사팀과 현장의 필요 등을 조율하고, 성금과 위기관리 지침서 전달, 한국교회에 현장 정보 전달 등의 역할을 했다. 김진대 목사는 “이번 네팔 구호사역은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 재난 취약 국가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 관리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네팔 한인 선교사들은 네팔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식량과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네팔 주재 한국선교사협의회 재난대책본부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100% 천연성분



FDA IND임상

미국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제해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제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입니다.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amgreensolutions.com

엠그린의 '닥터솔라'가 전기값 95%, 물값 30%를 한번에 줄여 드립니다!



솔라시스템의 공급증을
속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엠그린-닥터솔라

솔라시스템 설치전 설치후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 Power

www.ladwp.com

Electric Amount Due **\$537.72**

Amount Due **\$23.38**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Charges

Electric Charges	3/4/14 - 5/5/14	3054 KWH	\$537.72
Water Charges	3/4/14 - 5/5/14	66 HCF	\$322.98
Total LADWP Charges			\$ 860.70

Electric Charges	3/4/14 - 5/5/14	152 KWH	\$23.38
Water Charges	3/4/14 - 5/5/14	45 HCF	\$215.69
Total LADWP Charges			\$ 239.07

Water Amount Due **\$322.98**

Amount Due **\$215.69**



California Lic# 947489

초기 설치비용 무료! (개인 Credit Score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솔라시스템-엠그린

- 업체 유일, 30% 물절약 시스템 함께 무료 제공**
 솔라시스템을 설치하는 모든 고객에게 절수형 토일렛, 스프링쿨러 노즐 무료교체.
- 최고의 파이낸싱 프로그램 제공**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견적, 가장 유리한 파이낸싱 조건을 찾아 드립니다.
- Made in USA 제품만 사용하는 유일한 업체**
 솔라패널과 인버터 모두 25년의 워런티 제공.
- LA CITY 선정 2년 연속, 에너지 절약 최우수업체**
 인정받은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안정적인 시공과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

주 7일 무료상담: 1.844.900.1004

1367 Venice Blvd, LA, CA 90006 / sunny@amgreensolutions.com



솔라 세일즈 컨설턴트 모집

북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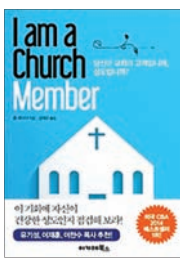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I am a church member
툼 레이너 | 아가페북스 | 136쪽

당신에게 교회의 '고객'인지 '성도'인지 묻는 짧은 책이다.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각광을 받았으며, 새 신자나 성도들의 양육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제 역할을 수행하는 성도, 연합하는 성도, 자기 취향과 욕구에 교회를 맞추려 하지 않는 성도, 교회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가족이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이끄는 성도, 교회 멤버십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는 성도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꿈꾸는 교회, 춤추는 하나님
이수훈 | 넥서스CROSS | 300쪽

비좁은 논길을 따라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산골 교회 이야기. 교회도 없는 당진의 농가에서 한 가정과 예배드리기 시작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처럼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역 사회와 가정을 회복시키며,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품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동일교회의 비전은 지친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다. 4부에서는 교회만의 교육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하나님, 우리 특해요!
김성수 | 그림 황성욱 | 예키즈 | 160쪽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방법을, 재미있는 예화와 만화를 통해 10대의 눈높이로 풀어냈다. 친숙한 위인들의 예화를 비롯해, 감동적인 이야기들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울 수 있다. 각 장 마지막 '내 삶에 적용해요'에서는 읽은 내용들을 삶에 적용하도록 했다. 주일학교와 중등부에서 7주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도록 엮었다.



답 없는 너에게
손봉호 · 옥명호 | 홍성사 | 208쪽

10대의 여러가지 고민들에 70대 노(老) 철학자가 답했다. '인간관계,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역지로 하는 거 딱 질색이예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등 네 부분으로 된 15가지의 다양한 질문에, 인자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풀어낸 내용을 엮어냈다. 저자는 10대들에게 "지혜는 우리같이 늙은 세대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REVIEW

“어느 老 의사의 외침, 생명의 설계도를 따르라”

성경적 관점에서 다룬 전인지유의 원리와 적용방식

성경은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다. 6500개 언어 중 280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선택적 가치인 하나님 사랑 외에도 이웃사랑과 자기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기에 신앙의 유무를 불문하고 읽을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노의사의 외침, 생명의 설계도를 따르라'는 이런 성경의 관점에 기독교 의사로서 신앙과 유전자의 관계와 전인지유의 관점을 연결한 책이다. 이 책에는 이웃과 민족을 사랑한 한 노의사의 신앙과 사랑이 녹아있다. 저자인 김영준은 1997년에 말기 암 환자였던 그의 아내가 오직 신앙과 사랑만으로 치유되는 사건을

체험한 뒤로 많은 암환자들에게 전인적인 치유의 힘을 알리는데 헌신해왔다. 그는 자신의 체험이 바탕이 된 책 '사랑 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1995년) 이래 여러 권의 전인지유 관련 서적을 저술해 왔는데, 이 책 '생명의 설계도를 따르라'도 성경의 신앙에 기초하여 현대 유전자의 발전된 새로운 지식과 몇 해 전 본인의 후두암을 치유한 배경을 바탕으로 저술한 전인지유의 원리와 적용방식을 기술한 책이다. 이 책에는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설계도를 따르라'는 저자의 외침이 들어 있다. 저자는 크리스천 의사의 관점에서 현대



생명의 설계도를 따르라
김영준 | 노란숲 | 163쪽

과학의 발전으로 발견된 유전자를 생명의 복으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양육 및 치유의 사

역이 살아있어야 할 교회 내에서 유독 치유사역이 경시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한국교회가 교회 내에서 치유사역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창세기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과 함께 우리 죄를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바탕으로 깔려 있는 이 책은 우리의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하는데 신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우리가 창조주 안에서 마음을 비우고 유전자에 입력된 생명의 설계도에 따라 살아갈수록 건강과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 진화, 식

습관, 노동과 수면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붙이고 살아야 함을 아울러 강조한다. 또한 의학자로서 암 치료에 있어서 현대의학이 갖는 진단능력의 장점과 한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믿음에 근거한 영혼과 육체, 인간관계와 환경을 함께 치유하는 전인지유의 관점을 제시한다. 이 책의 부록 또한 매우 값있다. 저자가 오랫동안 헌신해온 전인지유 운동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사랑의 마을'의 안도현 목사와 '복내 전인지유신교센터'의 이바행 목사가 성경적인 전인지유 사역과 구체적인 치유방식 및 사례 등을 소상히 기술하고 있다.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김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NB CORSET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뢰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김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기적의 섬유'로 만든 「몸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내면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성령과 분리 안 돼

퀘이커교의 창시자 조지 폭스의 일기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난 조지 폭스(Gorge Fox, 1624-1691)는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는 인생에 회의를 느끼고 열아홉 살에 집을 나와, 4년 간의 구도여행을 통해 펜들 힐(Pendle Hill)이라는 산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1647년경부터 설교를 시작하여 '내면으로부터의 빛'에 의한 구원을 전하며, '진리의 빛'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퀘이커파(친우회, 또는 종교친우회)는 영국 정부에 의해 탄압받았으나, 퀘이커 신도 윌리엄 펜이 북아메리카 식민지 영토에 도시(현 미국 펜실베이니아)를 세움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허용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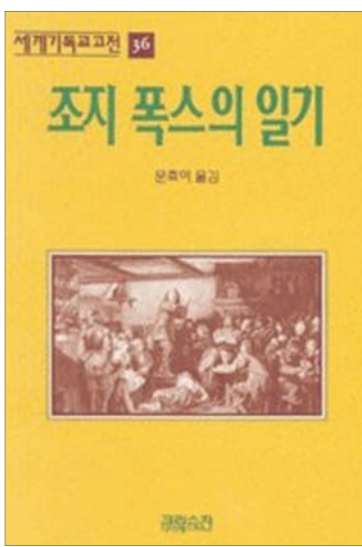
퀘이커교의 창시자인 조지 폭스의 「일기(The Journal of George Fox)」는 웨슬리의 「일기(Journal)」나 뉴먼의 「나의 생애를 위한 변명(Apologia pro Vita Sua)」과 같은 부류의 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폭스의 글은 이런 종류의 글 중 원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책은 신앙의 고전에 포함할 만한 무게를 지니기도 했다.

최초로 발행된 폭스의 「일기」에는 그에 관한 증언과 회상이 있는데, 편집자인 토마스 엘우드(Thomas Ellwood)와 폭스의 미망인,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 윌리엄 펜(William Penn)의 증언도 함께 실려 있다.

윌리엄 펜은 폭스를 1669년부터 알았는데, 펜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알았을 뿐 아니라, 직접 그와 오랫동안 내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와 친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초판 발행 이후인 1694년에는 다른 편집본들이 많이 나왔다. 「일기」는 다른 퀘이커교도의 책들처럼 처음부터 완전히 유럽 대륙의 언어로 번역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2세기 동안 영국과 아메리카에 있던 퀘이커 공동체는 작품 전체를 대륙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폭스의 「일기」는 그 내용이 방대했다. 「일기」는 폭스의 수년에 걸친 사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조지 폭스의 일기
조지 폭스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472쪽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 가장 먼저 큰 저항의 목소리를 낸 사람은 퀘이커교에서 변절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친우회에 대해 비평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폭스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책에 대한 비난도 있었다. 「일기」나 다른 책들 어디서든, 폭스가 죄의 고백에 대해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 때문인지 폭스의 반대자들은 폭스가 회개 없이 '죄 없는 초인적인 삶'을 주장한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한편 조지 폭스의 「일기」는 문학가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여러 문학가들이 우연히 폭스의 「일기」를 읽거나 도서관에서 찾아보았고, 이는 친우회 교우로부터 빌려왔던 것 같다.

대니얼 디포는 런던에 있는 몇몇 친우회 교우들과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이었다. 그가 자주 다니는 곳은 퀘이커 역사상 유명한 도시 지역과 일치하는 곳이었으며, 퀘이커교도는 그의 소설에서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프랑스 작가 중 초기 퀘이커교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유명한 사람은 볼테르였다. 볼테르는 그의 글에서 바클레이나 윌리엄 펜처럼 좋은 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폭스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언급들 중 더러 어떤 것들은 개략적

이지만 폭스의 「일기」에 근거를 둔 것들이 틀림없다.

대니얼 디포의 시대에서 1세기 후, 퀘이커교는 영국 문학에 깊이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런 관심은 퀘이커교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서 라기보다는 퀘이커교를 바라보는 연민 때문이었다. 또 그런 관심을 보인 작가들 대부분이 친우회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었던 까닭도 있었다.

실제로 폭스의 「일기」에 나오는 '이상한' 특징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점이었다. 죄를 인식함이 없다는 것은 18세기에 인정되는 전통적 교리에 다소 어긋나는 것이었다. 프랜시스 버그(Francis Burg)는 거듭해서 폭스의 「일기」에 대해 죄의 고백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고 비난하였다.

폭스는 유혹과 억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혹에 굴복했다고 인정하거나 자신에게 회심이 필요하다고 회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폭스 자신은 일기에서 그 자신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나는 아이답지 않게 진중하고 끈기가 있었다." "열한 살이 되었을 때 나는 순결함과 의를 알았다. 그동안 순결함을 지키며 행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내게 성경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은 털끝만치도 없다. 성경은 내게 아주 소중한 것이긴 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 안에 있었으며 성령께서 성경을 내게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열어 보이셨고 내가 나중에 발견한 것은 모두 성경과 일치하는 것들이었다."

폭스는 영국 국교회나 청교도와 갈등을 빚었다. 그는 직접적인 계시를 강조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앙의 틀에서 상당히 벗어나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좋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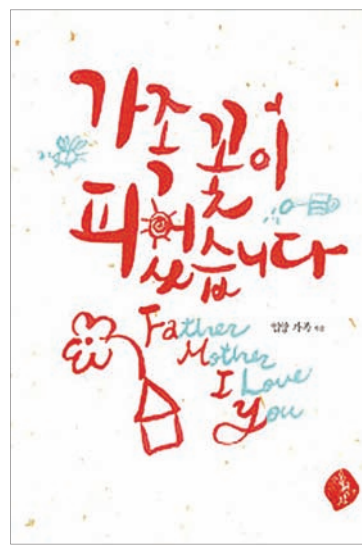
폭스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인용한 말을 사용하였으나, 자신의 혁명적 사고와 함께 전통적인 용어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는 직접적 인도를 역사적 계시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면의 빛은 그리스도나 성령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내면의 빛은 성경을 밝힌 영과 같은 영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런 폭스의 말에 학자들은 그가 성경 기록보다 내면의 경험을 우선시하고, 과거의 거룩한 행위보다는 현재의 신앙을 중요시한다고 말하고 있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56 입양가족들의 '한 가족' 만들어 가는 이야기



가족 꽃이 피었습니다
입양가족들 | 홍성사 | 208쪽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입양의 날'을 맞아, 홍성사를 통해 <가족 꽃이 피었습니다>를 발간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은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정의 한 아동을 입양해(1+1)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5월 11일에 기념하고 있으며,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 문화와 비밀입양 선호 등을 극복하고 아이들이 국내 입양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겨줬던 해외 입양은 사회 인식 변화와 새로운 정책의 시행, 경제 발전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가정의 품에서 자라나지 못한 채 고아원에 가게 되거나 입양되는 아동들의 숫자는 상당하다고 한다.

유명인들을 비롯해 국내외 목회자 가정들을 통해 여러 아름다운 입양 사례들이 알려져 있지만, '입양'에 대한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따뜻하지는 않다.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주위 시선들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을까, 낯은 아이와 입양한 아이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다르지는 않을까 등 여러 고민들을 떠올리다 보면, 입양을 원하

는 가정이라 해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출간된 책 <가족 꽃이 피었습니다>에는 56가지 입양 가족들의 다양한 실제 이야기들을 담아내, 그러한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뿐 아니라 아직도 남아 있는 입양에 대한 편견을 씻어주고 있다. 책은 '입양 가족 사진 공모전'에 출품된 사연과 사진들을 엮은 에세이집이다.

프랑스로 입양돼 자라난 한 남성은 모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국을 찾았다. 입양을 해 아빠가 됐다. '내 엄마'를 찾겠다는 아이의 속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진짜 엄마'가 된 경우도 있다. 각 가족들의 사연을 들여다 보면, 입양이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선행이나 희생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쉽지 않은 결심을 실행에 옮겼던 이들은 이야기한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때론 너무 고단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가정에 가져온 행복은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을 만큼 큼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이야기하면, 복 받을 거라는 인사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아빠이고 엄마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직후 고아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사업으로 출발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소명 아래 아동 행복 중심의 '입양복지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특히 입양에 대한 사회의 '불편한 시선'이 '건강한 관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데, 책이 된 '입양 가족 사진 공모전'도 그 중 하나다.

홀트아동복지회 김태열 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 가족들이 아닐까"라며 "이 책에 담긴, 꽃들 만큼이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시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용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 213.487.0691

사랑이 꽃피게 하는 입양가족 이야기

56가족의 '한 가족' 만들어 가는 이야기

책 속의 한 장면 ©홍성사 제공

희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원 FDA임상 2차 실험진행
-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 미·제항공인병원 수석연구원
-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병 \$89 3병 \$249 6병 \$474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계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주님미디어닷컴 전문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플 \$65 (플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성기하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완료, 각종 인쇄, 연속복, 각종 사인(상패, 피켓지, 배너, 반죽공인배, 전문) 주님미디어닷컴에서 제작 가능합니다

1. 전도용품 세입 **맞춤형으로 제작**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도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세기축 및 영문지 선물용 장영, 실교서디자이너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1, 101 Los Angeles, CA 90057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불어구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불고기 콩차구이 오모리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피디리빙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치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백반

금 공치김치 떡볶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김치구이 돈가스 치킨데리아까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Hair News Salon

-헤어뉴스살롱-

Hanna (헤나) Tel. 213-383-5916 Cell. 213-604-2118

3450 W. 6th St. #107-A, LA, CA 90020 (Kenmore & 6th)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튠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튼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담모어)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Alex Shin Fleet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이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Korean American Pastors Dialogue on Engaging the Community

Recent Issues Highlight Need for More Civic Engagement from Korean American Christians

BY RACHAEL LEE

Countless social issues are affecting the world today, and one issue that has been especially capturing the attention of the U.S. is the racial tension that has resurfaced due to the deaths of Michael Brown, Eric Garner, and Freddie Gray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Since the first incident in August, Christian leaders in various contexts have been discussing the issue of racial reconciliation, but many Korean Americans have begged the question: Where are the Korean American Christian leaders in these discussions? For many, the lack of a voice from the Korean American church on such issues seemed to reflect a lack of engagement of the Korean American church with other cultures in general.

This issue was discussed at the recent Connect Conference, a gathering of some 40 mostly Korean American pastors and lay leaders that took place at Thanksgiving Church in Buena Park, CA.

The conference, which aims to empower and connect Korean American pastors for the further building up of God's kingdom, particularly focused on social justice this year and the need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 leaders to engage in social issues.

"Ever since the incident in Ferguson happened, this is something that's been on my heart," said Grace Cho from Las Vegas Full Gospel Church, who served as the head organizer of the conference.

"We need to care about these issues, and ask Jesus to help us to see as he sees, and feel as he feels about these things," she said.

Steve Choi of Crossway Church; Susie Gamez from World Impact; and Aaron Cho from Quest Church, spoke on the first day of the two-day



(From left to right: Steve Choi, Susie Gamez, and Aaron Cho) The Connect Conference discussed how Korean American Christian leaders are to engage with social issues in the current day.

conference, during which the dialogue was mostly focused on community engagement.

Steve Choi began the conference by setting the foundation for acts of justice: the grace that God freely gives. He cautioned leaders against using good works—including those of social justice—as a way to somehow repay God for his grace, and instead reminded them that God's grace is a gift freely given and one that can never be repaid. This truth frees the Christian to become grateful, gracious, and generous people to others, Choi said.

With grace as the foundation, Susie Gamez and Aaron Cho focused their attention on the need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s to engage in dialogue about social issues and racial reconciliation.

"Korea is known to be one of the countries that sends the most missionaries overseas," said Gamez, a Korean American woman who married a Latino American man. Both Gamez and her husband serve in World Impact.

"But have Korean Americans taken the mission call seriously in our own backyards? Will the commu-

nity around us recognize us for the love we have for our neighbors?"

Discussing Koreans' tendency to be exclusive, Gamez explained that this may arise from Korea's history of having to defend itself from numerous countries.

"Defending our culture is a major part of our history," she said.

However, she added, Korean Americans who have grown up in the U.S. "have a different call" to their lives, and "live in a different time and place from that of" previous generations.

"We [Korean Americans] have to be intentional in undoing the exclusive tendencies," Gamez said.

Aaron Cho agreed, and added that the upbringing of Korean Americans may also affect their engagement, or lack thereof, with the greater community.

"I didn't talk about race and justice at the dinner table with my parents," Cho said. "And having not grown up with these discussions, we probably wouldn't know how to engage in them as adults."

"So I think a lot of times, we stop ourselves from publicly discussing these issues because we're

afraid we'll say something wrong. But saying nothing is also saying something," added Cho.

"Does your ministry and/or church talk about injustices happening in the world, and is there room to pray for these issues? These issues of Ferguson and Baltimore are the points of main conversation in the country today. These incidents will be in the future history books."

Cho encouraged leaders to take steps toward greater engagement by discussing and praying about these issues in the ministry setting, building relationships with people of different backgrounds, and even studying Christian books by people of different backgrounds.

Connect Conference was started in 2007 by the Assemblies of God Korean District Council with the heart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pastors. Eventually, the conference began to focus on empowering Korean American pastors to impact their communities, and give them opportunities to connect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to work together for God's kingdom.

Korean Churches Intercede for the Nation

BY RACHAEL LEE

In observance of the National Day of Prayer, some 800 people from various Korean churches in the Orange County area gathered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on the night of May 7, interceding on behalf of the U.S. and the leaders of the nation.

"When we pray, miracles happen," said Reverend Jungmyung Song, the CEO of Gospel Broadcasting Company (GBC). GBC is one of the largest Korean Christian radio stations in Southern California.

Several dozen Korean immigrant and Korean American leaders led prayer topics on repentance; intercession for families and school campuses; intercession for President Obama, Congress, the Supreme Court Justices, and the other leaders of the nation; intercession for the leaders of churches and ministries; intercession on behalf of Korea; and intercession on behalf of missionaries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facing persecution in their mission fields.

"May You give courage to carry out justice; courage against evil; and courage to do what is right," attendees prayed on behalf of the nation's leaders.

The National Day of Prayer is a designated national observance that has been observed since 1952 by a joint resolution in Congress that was signed by former President Harry Truman. Over 40,000 gatherings are estimated to have taken place on Thursday to observe the day in corporate prayer.

The gathering of Korean churches at GMI was hosted by the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 (JAMA) and the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V: The Need for Mutual Understanding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Pastor Jim-Bob Park is the senior pastor of Oriental Mission Church.

BY RACHAEL LEE

Korean Americans in the immigrant family and immigrant church contexts are likely familiar with the cultural, lingual, and generational struggles in interactions between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Pastor Jim-Bob Park, the senior pastor at Oriental Mission Church (OMC) in Los Angeles, likewise, has experienced such struggles firsthand. Park experienced the second generation's pains and hurts as he served in English ministry (EM) for 20 years in multiple churches.

"Much of the second generation struggle with disillusionment of the spirituality of their parents. They saw Sunday Christians in their parents, and they don't want that. They were exposed to church fights, splits, and politics. The wickedness of one generation is killing the next," he elaborated.

Despite the things they've seen in the first generation, however, Park says that those in the second generation who are devoted to the Lord have a genuine and authentic faith—but again, the first generation doesn't make that devotion easy for them. Many first generation parents are unwilling to let go of their children, and tend to worship "a golden calf idol of success," he said.

As the first generation invested so much in their children, they often have high expectations for

success and fail to tell their children what to do after the success, which is living for God's glory and his kingdom, Park explained.

"The first generation suffered so much for their children, and they subconsciously or consciously want a paycheck or a return from the second generation. But I tell the first generation to not overinvest in their children, because children bring the worst return. Children are supposed to leave you and become one flesh with someone. Don't be disappointed if they don't come back to take care of you," he said.

Park also explained that sometimes, the KM (Korean ministry) is so protective of the EM, that the latter are handed everything on a silver platter, and are not given the opportunities to take responsibility.

"We need to let EM make mistakes," he said. "That's how they grow, and that's how they become more responsible and have more ownership."

Park has been trying to apply that in his own church. Since the EM pastor of OMC left, Park has been preaching for EM services until they find their new full-time EM pastor. However, he won't have any part in the search process—the current part-time EM pastor and EM leaders have been given the responsibility to find their new pastor. The EM also manages their own offerings.

Lack of ownership combined

with too many choices may be the cause for EM pastors choosing to leave a church when it becomes difficult, or for EM members choosing to "church hop." But Park encourages the second generation to cultivate endurance and patience, and "to seek a life of holiness rather than a life of comfort."

Leaving a life of comfort is what God led him to do when he was first called to leave EM and serve in KM 8 years ago. Park came to the U.S. when he was only 10 years old, so he felt that his Korean wasn't good enough to be able to preach in Korean, and the first generation was an entirely unfamiliar culture to him.

"But I felt the Spirit saying to me, 'You didn't go to KM to be comfortable. You went to KM for reform.'"

Since then, Park said he committed to speaking a message of repentance to the first generation Korean Christians. One of the main things he tries to help them understand is that the KM cannot expect EM to be a continuation of KM and everything that KM did.

"They need to look at EM as a mission field, not as a continuation. You can't expect EM to do everything the same way as KM because they live in a different culture with a different language," he explained. "KM wants to dress up EM in their own spiritual attire, but it's not appropriate for them. It's like when Saul encouraged David to wear his armor into battle. David didn't like the armor because it was too heavy; so he took it off, and he went into battle as he was—and he killed it."

Ultimately, what is needed between the two generations is a better understanding of each other, but Park encouraged EM pastors to not take the KM and EM relationship "too seriously."

"It's not as bad or as rosy as you think it is, so just let it go."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American Christians on the Decline, Study Finds

Yet America Still Maintains Highest Number of Christians

BY PATRICK LEE

America's religious demographic has changed in the last seven years as the number of American Christians has dropped in both percentage and overall number. On Tuesday, the Pew Research Center released a study showing the changes in the American religious landscape for the year of 2014.

The report includes a sample size of more than 35,000 Americans and shows that Christianity is not as prominent as it was seven years ago.

In 2007, when the last report was published, 78.4% of U.S. adults claimed to belong to a Christian group, which includes Protestants, Catholics, Mormons, and more.

In 2007, the percentage of Christians in America today than in 2007. Among the groups identified as Christians, the largest drop was seen in the mainline Protestant and Catholic groups.

America, however, still has more Christians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the study found.

In 2007, Mainline Protestants and Catholics accounted for 18.1 and 23.9 percent of U.S. adults respectively. 7 years later, they accounted for 14.7 and 20.8 percent. Evangelical Protestants, however, only dropped from 26.3 to 25.4 percent.

While the general number of Christians in the U.S. has dropped, the number of those not associating with a faith grew.

About 22.8 percent of U.S. adults had no religious affiliation in 2014; in 2007 it was 16.1 percent. 18 percent of the U.S. adult population reportedly grew up in religious homes and now consider themselves to have no religion.

The general increase in this group affects many demographic groups, reports the Pew Research

Center. The unaffiliated group is one of the younger groups compared to religious groups, and continues to get younger. The average age of the group dropped from 38 in 2007 to 26 in 2014.

Further, the percentage of Christian college graduates has dropped from 73 to 64 percent. The percentage of Christians with less than a college education also dropped, from 81 to 73 percent.

Gender lines also show distinction in terms of religious affiliation. 27 percent of men consider themselves to have no religious affiliation while 19 percent of women identify with that group. Both males and females have increased percentage in this group, however.

The research also found that diversity of Christians in the U.S. has increased despite the overall decline in number.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now make up 41% of Catholics (up from 35% in 2007), 24% of evangelical Protestants (up from 19%) and 14% of mainline Protestants (up from 9%)," the study states.

Though the Christian faith has lost members, Islam and Hinduism have gained prominence in America. Muslims grew from .4 percent to .9 percent of U.S. adults, while Hindus grew from .4 to .7 percent. Currently, non-Christian faiths make up about 5.9 percent of the U.S. adult population, an increase from the 4.7 percent in 2007.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telephone interviews and has a margin of error of .6 percent.

This recent study is the second study on the religious landscape of the U.S. that Pew Research conducted and published since the first that was conducted in 2007. The research organization states that the study was originally designed to "fill the gap" that exists due to a lack of consistent, reliable, and comprehensive research with a large sample.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KONICA MINOLTA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opm Duplex	Dual Scan ADF 80opm Simplex	Emperor Driven!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



Simitri with Blomax *Optional : Fax & Finisher